

## 이효석 문학의 커피향기와 카페공간 고찰

이 미 립\*

### 요 약

문학이론과 근대지식으로 무장한 이효석은 에로티즘과 엑조티즘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소설을 남겼다. 대학교수를 지닌 작가는 예술과 생활을 일치시켰고, 서구근대문학의 조건으로 풍토, 기후, 육체를 중시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작품을 탄생시키므로 딸기 같은 문학, 토마토 같은 문학, 능금 같은 문학, 메주 내 나는 문학, 버터 내 나는 문학이 탄생한다고 보았다. 서구근대문학을 육체문학, 청년문학, 체취문학으로 이해한 작가는 커피향기와 카페공간을 근대성의 기호이자 안식처로 활용했다. 카페는 1930년대 구인회 소속의 모더니즘소설의 배경을 형성했고, 이효석 역시 일상과 작품 속에서 커피향이 흘러나오는 카페공간에 대한 장소애를 가졌다.

카페는 근대성과 구별짓기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모멸과 억압에서 벗어나 누구나 대접받고 환영받는 곳이었다. 촌사람, 전근대인과 구별되는 카페공간엔 예술과 지식, 음악과 세련된 정서를 바탕으로 지적인 대화가 오갔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내밀하고도 은밀한 은신처이자 안개, 운문, 향기, 꿈, 공상으로 비유되는 예술가적 감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차를 마시고 문학을 토론하며 시간을 점검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일은 근대적 시간하에 근대적 삶의 양상을 드러내는 근대인의 모습을 의미했다. 항구도시 근처에 위치한 〈기우〉, 〈북국사신〉의 카페는 사연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어 노래하고 춤추고 술과 커피를 마시고 사랑을 쟁취하는 낭만과 청춘의 오아시스로 재현된다. 밀항자, 여행자,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국경을 넘기 위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카페는 앵겔스걸인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러시아 여급이나 가족경제가 몰락해 여급의 나락으로 떨어진 조선여인의 사연을 담고 있다. 초기소설 속 카페는 일제의 억압과 폭력과 감시망에서 벗어난 식민지 조선인의 망명과 궁핍과 낭만이 혼재되고 있다. 카페는 룸펜의 공상과 여가와 사교의 소비공간으로도 재현된다. 실직한 지식인 룸펜들이 경성 혹은 평양거리를 걷다가 지쳐 들른 카페는 식민자본주의 근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도시문명의 특성을 드러냈다. <천사와 산문시>에서는 남루하고 초라한 하숙집을 나서 호텔, 백화점, 카페, 카바레가 즐비한 거리를 산책하다가 여급 즉 마음의 천사가 있는 카페에서 위로와 성적 서비스를 받는 일상을 그린다. <공상구락부>도 30살의 실직한 미혼남성 4명이 카페에 죽치고 앉아 미인과 여행을 갈망하거나 세계여행을 꿈꾸지만 광산 사업의 실패로 모임은 해체된다. 카페여급과 남성고객과의 욕망과 사랑의 실험장인 <성찬>, <계절> 속 카페는 일부일처제, 가족주의, 낭만적 연애, 가부장제, 이성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연적을 질투하기보다는 연민과 연대의 차원으로 성찰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급이 머무는 곳이다. 카페는 망명과 궁핍과 낭만으로서의 오아시스, 룸펜의 공상과 여가와 사교로서의 소비공간, 여급의 성과 사랑이 실험장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주제어: 커피향기, 카페공간, 근대성의 기호, 구별짓기, 오아시스, 여급, 룸펜, 성과 사랑의 실험장

## 목차

1. 머리말
2. 이효석 문학과 서구생활양식
3. 근대성의 기호이자 구별짓기
4. 망명과 궁핍과 낭만으로서의 오아시스
5. 룸펜의 공상과 여가와 사교의 소비공간
6. 여급의 성과 사랑의 실험장
7. 맺음말

## 1. 머리말

문학의 진폭이 크고 다채로운 이효석 문학은 단일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쉽지 않다. 엥겔스걸과 주의자의 계급의식과 식민지 조선의 비참함을 그린 동반자문학, 강원 영서지역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서정문학, 근대적 생활양식을 묘사한 도시문학,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그린 에로티즘문학, 일본어문학 등 시대별, 주제별, 장르별, 언어별로 총망라하여 300여편의 글을 남긴 이효석은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으로 대학교수를 역임했고 창작활동과 생활양식을 일치시킴으로써 문학에 전력투구했다. 심약하고 예민한 그는 시류에 편승하거나 유행을 쫓아 총독부에 취직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예술과 근대를 향한 열정으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반복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문학이론과 근대지식으로 무장한 이효석은 당대의 문예사조를 작품 속에 구현했다. 경성제대 시절 일본교수에게 배운 근대이념과 유진오와의 친분 속에 마르크시즘을 접했으며,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문학교육과 문학창작에 일생을 바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영서 출신 작가로 1930년대 동시대에 활동한 김유정, 이대준에 비해 문학적·문학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유별난 서구취향과 경도된 백색선호 그리고 폭넓고 실험적이며 일관되지 못한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이다. 근대생활양식과 취향을 바탕으로 근대인 되기를 지향했고 근대문학을 창작한 이효석은 ‘꿈과 리얼리티, 진실과 환희, 낭만과 리얼, 생활과 시의 조화를 추구했’<sup>1)</sup> 당대의 시대정신인 반제보다는 반봉건에 치우쳤기에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역할에 미흡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의 귀족적이고 서

1) 이미림, 『이효석 문학의 유토피아 지향과 낭만적 요소』,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50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8.

구취향적인 사고와 삶의 패턴은 이효석 문학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했다.

이효석 문학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분석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본고는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커피향기와 카페공간이 지닌 의미를 고찰<sup>2)</sup>하고자 한다. 1930년대 구인회 소속의 모더니즘 문학에서 카페공간을 배경으로 카페여급과 룸펜 인텔리와의 연애와 불륜과 일탈은 1930년대 소설의 한 지형을 형성한다. 이상, 김유정, 박태원, 최명익 소설의 경성 거리를 방황하고 도시민들을 관찰하고 사유하는 글쓰기는 식민지 지식인의 보편적인 일상이었다. 따라서 도시소설의 배경인 카페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커피향은 식민지, 억압, 봉건 등 시대적·사회적 변민과 절망, 고뇌의 흔적과 더불어 근대성, 세련됨, 낭만, 사랑, 판타지, 청년문화의 기호를 담고 있었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커피에 대한 기호적 특성과 카페 공간의 함의를 살피고자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 2. 이효석 문학과 서구생활양식

이효석은 커피애호가였으며 잠깐 구직의 어려움이나 생활의 곤란을 겪었지만 결혼하고 교사 및 대학교수가 된 후<sup>3)</sup> 비교적 귀족 취

2)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권, 한국현대문학회, 2002,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2003, 「카페, 근대 유희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박숙영,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제25권,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하은지, 「1930년대 도시소설을 통한 문화 연구: 다방과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11, 오윤정, 「1930년대 경성 모더니스트들과 다방 낙랑파라」,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3집, 2017, 이미림, 「1930년대 소설 속의 타자화 · 성애화된 직업여성 고찰」, 『문명연지』 제15권, 한국문명학회, 2014 등이 있다.

향의 상류층 생활을 했다. 누막염에 걸리는 등 병상생활을 자주 한 이효석은 섬세하고 예민한 성격을 지녔고 근대추구와 서구취향의 세련된 모던 보이, 댄디로서 이를 예술과 생활 속에서 실천했다. 기질적·체형적으로 외배엽형<sup>4)</sup>인 이효석은 내성적이고 비사회적인 경향을 보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나 여성적인 태도와 관심을 보였다. 빵, 우유, 커피, 아스파라거스, 버터, 치즈, 홍차 등의 서양음식과 기호식품에 민감했던 그는 크리스마스 트리, 전축, 음반으로 가득 찬 실내장식을 한 집에서 서양음악을 듣고 유럽영화를 탐닉했다. 안경, 서양양복, 구두 등 의상으로 한껏 멋부린 이효석의 엘리트적·귀족적 삶은 서민 및 하층민과 구별되었다.

예술과 삶을 일치시켰던 이효석은 서구적이고 근대적이며 세련된 취미를 생활화했다. 미각은 가끔 시각보다도 더 선한 인상을 주며 호텔식당에서 먹는 살구 맛을 즐거워했고<sup>5)</sup>, 손수 만든 샌드위치, 핫케익과 더운 코피는 날마다 먹어도 싫은 법이 없으며<sup>6)</sup>, 우유를

- 3) 이효석은 경성농업학교 영어교사 4년을, 평양 숭실전문학교(36-38), 대동공업전문학교(39-42) 영어과 교수로 재직했다.  
4) 셸던은 사람을 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신체 유형	기질적 특성과 자연에 대한 태도
외배엽형(피부-신경발달형: 키가 크고 여위며 허약하다)	초연함, 사려깊음, 소심함, 내성적, 진지함 (자연환경을 명상한다. 자신만의 내면을 성찰하려고 자연을 해석한다)
중배엽형(근골격형: 뼈가 굵고 근육질에 기력이 왕성하다)	지배적, 쾌활함, 모험적, 낙관적, 논쟁적 (자연 정복을 즐긴다, 예컨대 사냥꾼, 토목기사)
내배엽형(내장형: 부드럽고 등글며 살집이 있다)	태평함, 협조적, 자애로움, 사교적 (자연을 육감적으로 즐긴다, 타인들과 함께 자연을 즐긴다)

이-푸 투안, 이육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82면.

- 5) 이효석, 『그때 그 港口의 밤: C항의 일척』(조광, 36.8), 이효석문학재단, 『이효석전집』 6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99면.  
6) 이효석, 『處女海邊의 結婚』(여성, 36.9), 위의 책, 103-104면.

흡족하게 마시는 나라야말로 이상사회이고<sup>7)</sup>, 장미의 냄새에서 구라파의 냄새를 느끼는<sup>8)</sup> 등 근대적 환경 속에서 근대문학이 생산된다고 여겼다. 커피에 대한 기호가 유별난 그에게 ‘냄새는 단순히 심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서로 다른 계급으로 나누는 수단<sup>9)</sup>’으로서 부유층과 빈곤층을 구분하였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음식문화는 과시와 모방을 통한 계층적 차이를 드러냈다. 〈주리아〉, 〈일포의 공능〉, 〈행진곡〉, 〈고요한 동의 밤〉, 〈낙엽기〉, 〈낙엽을 태우면서〉, 〈마음의 의장〉, 〈채룡〉, 〈낙랑다방기〉, 〈처녀해변의 결혼〉, 〈단상의 가을〉, 〈머른의 아침〉, 〈풀잎〉, 〈일요일〉, 〈하르빈〉 등의 수필과 소설에 커피와 버터가 등장하며, 위스키, 샴페인, 포도주, 워커, 햄, 치즈, 빵, 샐러드, 우유, 휴잉검,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바나나, 레몬스카시, 런치, 카레라이스, 햄, 러시아 수우프, 고급양주, 생일케익, 라뭉과자<sup>10)</sup> 등 작가의 미식습성이 작품 속에 구현되었다.

문학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풍토, 기후, 육체로 본 이효석은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박람회장이자 지식창고인 발자크적인 훌륭한 문학이 탄생할 수 없는 이유가 덩지도 차지도 아니한 걱정이 없는 가난한 풍토와 거세된 환경<sup>11)</sup> 때문이라며 우리 문학을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초라하다고 진단한다. 환경과 상황이 작품을 생산하므로 과일이 익음에 따라 딸기 같은 문학, 토마토 같은 문학, 능금 같은 문학<sup>12)</sup>이 탄생되기에 조선의 과일은 창작의 소재로 매우 주요했다.

7) 이효석, 『채룡』(조선일보, 38.4.28.-29), 위의 책, 243-244면.

8) 이효석, 『綠陰의香氣』(조광, 41.8), 위의 책, 376면.

9) 콘스탄스 클라센 외, 김진옥 역, 『아로마: 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49면.

10) 정경임, 『이효석의 Dandyism』,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86면 참조.

11) 이효석, 『北緯 42度』(매일신보, 33.6.3),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17-18면.

12) 위의 글, 18면.

능금, 석류, 산딸기, 개살구, 멜론, 참외 등을 훑쳐 먹고 따먹는 장면은 관능적이고 감각적이며 에로틱하게 묘사되어<sup>13)</sup> 육체, 성, 생명력, 자연합일, 남녀관계에 동원되었다. 술의 진미와 코오피의 도미를 즐기는 것과 함께 담배의 쓰고 짙고 향기로운 인생의 진미에서 쓴 문학, 어른의 문학이 나올 것<sup>14)</sup>이며 메주를 먹는 풍토 속에서 메주내 나는 문학이, 서구적 공감 속에 호흡하는 현대인의 취향으로서 버터내 나는 문학이 우러나며<sup>15)</sup> 한 국민으로서의 풍토와 습속 속에 살아있을 때 세계인으로서의 공감 속에 호흡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스스로 소속된 국민적·지역적 특질을 벗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넓은 뜻으로 보면 모든 문학은 다 각기 일종의 국민문학<sup>16)</sup>이라고 함으로써 문학의 자유로움과 확장성을 주창했다.

서구문학을 육체문학으로 본 작가의 개방적인 시각은 다채롭고 실험적인 창작물로 나타났으며 근대지식과 문학사상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탈영토화하는 문학적 변모와 추이를 보였다. 그에게 음식, 날씨, 국민적 기질, 습속은 문학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효석은 풍토와 기후에 기반한 문학, 버터내 나는 문학, 능금 같은 문학으로서의 육체문학, 체취문학, 청년문학을 근대서구문학으로 이해했기에 에로티즘과 엑조티즘은 그의 문학적 특성을 이룬다. 이효석이 커피향과 카페공간에 매혹되고 애호한 것은 문학관에서 비롯한 당연한 결과였다.

13) 이미림, 『김유정, 이효석 소설의 음식과 성 비교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제55집, 한중인문학회, 2017, 126면.

14) 이효석, 『晩習記』(매일신보, 39.5.19),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287면.

15) 이효석, 『文學振幅 擁護의 辯』(조광, 40.1), 위의 책, 527면.

16) 이효석, 『文學과 國民性』(매일신보, 42.3.3-6), 위의 책, 538면.

### 3. 근대성의 기호이자 구별짓기

작가는 숲속의 다양한 과일 섭취를 생명력과 성적 본능으로 대비하며, 귀하고 비싼 식재료에서 세련되고 도회적인 음식문화를 추구하고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활용했다. 계급과 서열을 나누며, 생존으로서의 먹을거리가 아닌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추구하는 사치로서의 음식문화는 작가의 삶과 문학에 관여했다. 여성적이고 편안하며 로맨틱한 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적이고 지적인<sup>17)</sup> 커피는 섬세하고 이성적인 문화로 인식되었다. 미각과 신경을 자극하는 카페인 성분이 함유된 감각적인 서구식 기호품인 커피를 대접받는 카페는 냉대와 차별이 없는 자유로운 공간이자 서구문명의 상징이자 호기심과 동경의 장소, 지적 과시의 장소<sup>18)</sup>였다. 모더니즘작가와 구인회 활동을 한 예술가에게 커피는 근대성의 기호로 작동했고 카페는 룸펜이 머물기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사회적 타자인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세련된 취향이라는 문화자본 외에는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 대접받고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다방이었고 취향이 차별화, 구별짓기의 기제로 작동하면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배타적인 감각의 공동체가 다방에 생성<sup>19)</sup>되었다.

여급과 관련해서 창작되거나 연구되어온 카페공간이 이효석에겐 촌사람, 전근대인과 구별 짓고 차별화하는 모던보이, 댄디, 인텔리의 감각과 취향, 지적 교양적 태도와 생활습관으로 나타난다. 기호 식품에 대한 애착과 카페에 대한 장소애<sup>20)</sup>를 보이는 이효석은 베토

17) 하인리히 E. 야콥, 박은영 역, 『커피의 역사』, 우물이 있는 집, 2005, 28면, 170면.

18) 박숙영, 앞의 논문, 42면, 50면, 52면.

19) 오윤정, 앞의 논문, 39면, 41면.

20) 토포필리아, topophilia, 이-푸 투안의 신조어로 삶의 터전에 대한 사람의 정

벤 교향악이나 재즈 등 고전음악을 듣거나 철학적·예술적 토론을 벌이고 여급과 손님들의 일상을 관찰하였다. 찻집에 갈 때마다 베토벤의 제6심포니를 여러 차례나 들었으나 끝끝내 지이드의 소설의 감흥을 당할 수 없었다는<sup>21)</sup> 작가는 고전음악과 유럽문학을 향유했고 감상하는 일상을 카페에서 보냈다.

낙엽 타는 냄새 같이 좋은 것이 있을까. 가제 볶아낸 코오피의 냄새가 난다. 잘 익은 개금 냄새가 난다. (중략) 백화점 아래층에서 코오피의 난을 짚어가지고는, 그대로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전차 속에서 진한 향기를 맡으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는 그대 모양을 어린애답다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또 즐기면서 이것이 생활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낙엽 타는 싸늘한 넓은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생각이다. 벌써 쓸모 적어진 침대에는 더운 물통을 여러개 넣을 구리를 하고 방구석에는 울 겨울에도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 색 저기로 장식할 것을 생각하고 눈이 오면 스키이를 시작해 볼까 하고 계획도 해보군 한다. 이런 공연한 생각을 할 때만은 근심과 걱정도 어디론지 사라져 버린다. 책과 씨름하고 원고지 앞에서 궁뎥거리던 그같은 서재에서 개운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에 잠기는 것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다.<sup>22)</sup>

문학적·생활적 취향과 감각은 작품세계에 활용되었다.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는 냄새는 문학적으로 이용되었는데, 사실주의자들은 작품에서 도덕적 주장을 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작품에 진실의 날카로운 향기를 부여하기 위해 냄새를 이용했고, 상징주의자들은 꿈(또는 악몽)의 정수를 전달하기 위해 냄새

과 사랑을 뜻하는 개념 혹은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  
- 이-푸 투안, 이옥진 역, 앞의 책, 12쪽. 21면.

21) 이효석, 『田園交響樂의 밤』(여성, 36.12),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141면.

22) 이효석, 『落葉을 태우면서』(조선문학독본, 38.12), 위의 책, 270면.

를 풍부하고 정서가 듬뿍 실린 이미지로 변화<sup>23)</sup>시켰다. 냄새는 그 무형성과 순간성 때문에 그 자체로 몽환적이었으며 내재적인 무형성 때문에 냄새는 정서의 무형성에 대한 문학적 메타포로 적절하게 쓰일<sup>24)</sup> 수 있었다.

카페는 모든 종류의 인간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장소였으며, 이곳에 간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모험<sup>25)</sup>이었다. 살롱, 카바레, 뻘, 호텔, 백화점 등 도시건축물 중 에로 서비스를 받는 카페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문화아지트인바 진한 커피향과 담배연기가 자욱한 밀폐공간에서 시와 예술의 혼을 이야기하는 문화공간<sup>26)</sup>이자 그 자체로 근대성을 의미했다. 낙엽을 태울 때조차도 연상되는 커피향은 독특한 향경<sup>27)</sup>을 조성했다. 외로운 현대인에게 영혼을 치유하고 내밀함의 공간을 의미하는 카페 동(DON)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작가는 보였다.

차집 「동」-이것이 또한 나에게서 중하고 귀한 곳이었다. 그곳을 바라보고 나는 거의 일요일마다 십리의 길을 걸었다. 공원 옆 모퉁이에 서 있는 조출한 한 채의 집-마차와 함께 거리의 그윽한 것의 하나였다. 붉은 칠이 벗겨진 DON의 글씨가 밤에는 푸른 등불 밑에 깊게 묻혀 버린다. 단칸방에 탁자와 의자가 딱 들어맞고 겨울에는 복판에 난로가 덥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신선하게 섰다. 마을로 가는 막차 시간 열한시까지 그곳에서 지우는 것이었다. 동은 그때의 나에게 향기를 준 곳이었다. 고요한 곳에서 그 향기를 찾으려고 나는 십리의 밤길을 앞두고

23)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120면.

24) 위의 책, 120면.

25) 하인리히 E. 야콥, 앞의 책, 225면.

26) 문화콘텐츠연구회, 『살롱, 카바레, 카페』, 예림기획, 2004, 6면.

27) smellscape, 냄새의 지형도, 후각적 지형도를 말하며 향경은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매우 유동적 패턴이다. -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133면.

눈오는 밤을 그곳에서 지우는 것이었다.<sup>28)</sup>

경성의 마을과 나남의 거리를 사랑하는 작가는 카페 동에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빵은 카네코가, 책사는 북광관이, 찻거리는 팔진옥이, 코오피는 동의 것이 최고라는 자신의 확고한 취향을 피력하며 빵 한 근을 사러 십리길을 타박거릴 때도 있고 코오피 한잔 먹으러 버스에 흔들린 때도 있었다는 이효석에게 커피와 빵을 사러 백화점과 카페를 가는 일은 가장 역할이나 교수라는 직업에서 탈피해 예술가의 예민한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시공간이 되었다. 계급의 지표로 기능하며 사회적 위계가 상응하는<sup>29)</sup> 취향과 역사의 산물로 교육에 의해 재생산되는<sup>30)</sup> 안목은 작가의 자유 교양과 문화적 욕구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작가는 지방 신문기자, 좌익시인, 사회운동가였다가 밀려난 주인에게 우익 여류작가와의 연애사건을 듣기도 하고, 동맹휴교를 지도하다가 칼을 맞은 지식청년 처제 T, 토목기사, 백화점 사무원, 관리, 실업자와 문학과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낸다. 연극과 문학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카페는 한량들의 피난처였고 가난한 사람들의 안식처<sup>31)</sup>였다.

십리의 거리인 경성에서 나남까지 오가면서 작가는 '넓게 헤벌어진 횡덩그레한 거리에 있는 낡은 마차와 모자 쓴 늙은 마부'가 있는 한쪽의 그림 같은 고요한 거리를 즐기며 찻점 '동의 크리스마스 트리'와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모카 자바 믹스트의 커피 향기, 난로 그리고 박학다식하고 교양이 깊은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감

28) 이효석, 『고요한 「동(DON)」의 밤』(조광, 1936.12),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134면.

29) 피에르 부르디외,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새물결, 2006, 22면.

30) 위의 책, 25면.

31)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31면.

정이 화려하게 장식되고 찬란한 꿈을 느끼는 아름다움으로서의 부연 안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한다. 가족이나 노인이 등장하지 않는 이효석 문학 속 카페는 자동화된 일상에서 벗어나 예술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집과 학교에서 카페로 가는 거리 풍경은 안개, 향기, 운문으로 상징하는 소설의 배경을 이룬다. 커피향과 버터냄새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민 실내장식은 근대인이 근대적 사유를 하게 하는 근대적 환경에 맞게 조성되었다.

코오피에다 핫케익이나 먹고 나면 저녁 구미는 푹 떨어져 버린다는 작가는 홍차, 레몬스퀴시 등 서구식 기호품에도 민감하며, 「히노도리」, 「마즈르카」, 「야마도」, 「세르광」, 「브라질」 등 평양의 다방에도 관심을 둔다. 다방을 선택함에 있어 설비 의장(意匠), 음악, 레지, 분위기 등 다방의 격식을 점검하며 각각의 장점을 파악하는 그는 차 한 잔을 시킨 후 3,40분 동안 차이코프스키의 〈파세텍〉, 베토벤의 트리오 〈대공(大公)〉 등의 교향악을 들을 시간이 된다는 계산하에 기분에 따라 하와이안 멜로디, 재즈음악을 듣는 등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했다. 한가롭고 빈둥거리지만 시간을 체크하는 작가는 '근대적 시간성의 무의식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근대적 삶'<sup>32)</sup>을 체화한 근대인이었다.

어떻든 이 산보의 시각 전후가 다방을 찾기에는 가장 고요하고 적당한 때이지 밤에는 아예 갈 곳이 못되는 것이 사람들이 웅성거리는데다 까딱하다가는 문하(門下)의 학생들을 만나기가 일쑤다. 개중에는 한 탁자에 청해 와도 좋은 사람도 있기는 하나 거기는 저쪽도 거북스럽고 이쪽도 편편치 않다.

서울서는 학생들의 다방출입을 금한다는 소문이나 평양에는 아직 그런 엄격한 울도는 서지 않았고 사각모패라야 단 두 교뿐이니 관대하게 취급은 하나 그만큼 그들의 자태는 더 눈에

32)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28-29면.

뜨이게 되고 한 다방에서 마주칠 때에는 피차에 편안치 못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밤에는 다방출입을 삼가게 된다.

다방행(茶房行)에도 이 정도의 조그만 수난은 있는 것이다. 세상 편편한 일 한 가지나 있으리, 속히 이곳에도 서울만치 다방이 자꾸자꾸 늘어서 좋은 음악 많이 들리고 좋은 차 많이 먹이게 하고 웬만한 구석목 다방에 들어가서 쫄은 학생의 그림자 눈에 안 뜨이게 될 날을 기다린다.<sup>33)</sup>

자기만의 공간인 카페에서 타인의 방해나 시선을 받지 않길 바라는 이효석은 커피향을 통해 내면의 행복과 외면적 호감이라는 효과를 창출하며 아로마테라피<sup>34)</sup>를 획득한다. 장소애가 강한 작가는 해삼위에서 완벽한 사회주의 분위기를 느꼈고, ‘푸른집’으로 표현되는 폐쇄적 공간에서 성과 사랑을 실험하는 에로티즘 환경을, 주울온천에서 여가와 서구적 분위기를, 하얼빈을 동양의 파리로 인식했다. 폐쇄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카페라는 ‘닫힌 공간은 자궁, 은거, 어둠, 생물학적 삶이라는 아늑하고 무사한 안식처’<sup>35)</sup>로서 이효석에게는 절실한 유토피아였다. 이효석 문학에서 다방, 차집, 차점, 깍다부(喫茶部), 티어룸으로 불리는 카페는 외롭고 특권의식을 지닌 작가가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문학토론이 이루어지는 식민지 예술가의 아지트였다. 또한 당대의 문사나 예술가에게도 카페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sup>36)</sup>은 보편적인 것이었다. 생활 속에서 이효석은 화단

33) 이효석, 『낙랑다방기(樂浪茶房記)』(박문 3호, 1938.12), 『이효석전집』 5권,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205-206면.

34) aromatherapy 혹은 아로마콜로지 aromachology라고 불리며 향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콘스탄스 클라센 외, 앞의 책, 259면.

35) 이-푸 투안, 앞의 책, 54면.

36) 당대의 커피와 카페에 대한 자료로는 이태준 『喫茶와 軀手』 별건곤 1929.1, 木貝生, 『카페-의 縱橫과 學生群의 出沒』 동방평론 1932.5, 최정희, 『茶房, 거리의 避難處』 조선일보 1933.10.6, 이선희, 『茶黨女人』 별건곤 1934.1, 박영희,

과 화분의 꽃향기로 심신을 치유하고 생명력을 회복했으며 카페의 커피냄새에서 탈정치적이고 탈이데올로기적인 휴식을 취했다. 사회적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며 그 안에서 생활에 대해서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공간, 그런 만큼 명시적인 규율과 명령, 억압과 강제 등이 지배하는 다른 외부 세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공간인 근대적 표상을 형성하는<sup>37)</sup> 의미로서 카페는 또하나의 내밀하고 안온한 공간 역할을 수행했다. 구별되면서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대해주는 카페는 '식민지민이라는 낙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조선인들에게 허용된 가장 매력적인 도피처인 나르시시즘'<sup>38)</sup>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 4. 망명과 궁핍과 낭만으로서의 오아시스

〈기우〉(조선지광, 29.6)는 자살로 삶을 마감한 계순과 '평생 세 번의 기이한 해후'를 통해 식민지 현실이 여성타자의 삶에 얼마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웠는지를 계급의식적 관점에서 그린다. 낙원동 네 거리에 위치한 장안의 손꼽히는 여관에서 하숙할 때 알게 된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여관집을 차압당하고 뒷골목에서 한 노파와 사나이에 게 운명이 아슬아슬하게 달려있는 상황 하에서이다. 점점 몰락하여 가는 그 집안과 계순이의 장래를 한없이 슬퍼하는 나는 그녀의 불안

『茶街散步』 신동아 1934.9, 박태원, 『엄홍섭과 카페』 조선문단19355, 알파, 『茶房과 藝術家』 동아일보1935.6.6, 깍다점 매담 복혜숙, 기생 김한숙, 여급 조은자 외, 『女高出身인 인테리 妓生 女優 女給 座談會』 삼천리 1936.4, 복혜숙 외, 『喫茶店 戀愛風景』 삼천리, 1936.12, 李秉珩, 『茶의 肉體와 精神』 조광 1937.9, 『茶 와 나』 여성1937.2, 현민, 『現代의 茶房이란!』 조광1938.6, 채만식, 『茶房讚』 조광, 1939.7 등이 있다.

37)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357면.

38)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254면.

한 미래를 통해 식민지 현실의 참담하고 어두운 시대상을 인식한다. 두 번째 만남은 삼년후 박군과 함께 오래전부터 계획한 ‘해삼위행’을 단행하기 위해 들린 동해안의 어떤 항구의 술집(카페)에서이다. 밀항의 도착지는 “새파란 바다 건너 저쪽편에는 새파란 하늘 닿은 그 나라에는”으로 서술되는 이상향인 북국 해삼위였다.

앞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높이 서 있는 조그마한 카페는 정하고도 고요하였다. 오리알빛 같은 벽, 진홍빛 카텐, 스탠드 위의 푸른 화초 이 모든 것이 창으로 멀리 내다보이는 바다빛과 양기로운 조화를 띠고 있었다. 벽 위의 패종이 두시를 땡땡 울리는 고요한 오후였다. “술!” 창 옆에 진 치고 앉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땅에 대한 꿈과 장래의 포부를 피로하여 가면서 술잔을 높이 들었다. 유리잔 부딪치는 소리가 옆에 앉은 계집아이의 가늘게 부르는 콧노래와 얹쳐서 고요한 카페 안에 반영하였다. “흐르고 흘러서……”-애조를 담뱃뚝 땀 유량의 한 곡조가 이상히도 방랑의 흥을 북돋았다. 흐르고 흘러서-이것이 그나 우리나라 피차의 운명일 것이다. 북은 서백리아가 되든 남은 남양이 되든 흐르고 흘러서 안주할 바를 모르는 것이 곧 피차의 자태였다. 아직 길 떠나지 않은 우리는 이제 이 항구 이 술집에서 이미 바다 먼 해외에나 나간 득한 이국정서를 느꼈다.<sup>39)</sup>

항구 주변의 카페는 떠돌이와 방랑자, 선원들을 맞이하고 보내며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한다. 노래를 부르고 술을 따르는 여급들의 왁자지껄 떠들썩하고 들뜨고 흥청망청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서 바다만 보며 눈물을 흘리는 유리꼬는 손님 접대에 능란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카페를 급습한 일본 순사에게 잡혀간 그녀가 기모노를 입은 계순임을 알게 된다. 집이 가난해 어떤 난폭한 사나이에게 팔려갔다가 버림받

39) 이효석, 『기우』, 『이효석전집』 1권, 이효석문화재단, 앞의 책, 99면.

고 다음 사나이에게도 팔렸지만 도망하다가 항구 카페에서 붙잡힌 것이다. 순사의 등장에 불온한 사상과 이념을 실현하고자 밀항, 불법이주, 망명하는 식민지 조선 청년과 채무빚에 시달려 고통의 나라으로 한없이 빠져드는 계순은 우리 민족의 억압되고 궁핍한 모습이다.

세 번째 만남은 총동맹의 위원으로서 어떤 사건의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하르빈의 키타야스카야 거리의 마굴이자 빈민굴의 창녀촌에서 중국복을 입은 계순과의 조우이다. 독한 병독으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계순을 구해내기 위해 돈을 갖고 갔지만 그녀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다<sup>40)</sup>. 이효석은 시대적 궁핍과 억압과 절망 속에서도 항구 주변의 카페를 배경으로 낭만과 위안과 꿈을 간직한 젊은이들의 삶을 그리며 마르크스 이념을 구축하고 실현한 공간인 러시아 해삼위로 밀항하는 주의자인 청년과 카페여급의 낭만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준다. 계급문학적 성격을 지닌 북국 삼부작인 이효석의 해삼위에 대한 유토피아 지향이 드러난다. 식민지 조선과 가까워 밀항하기 수월한 러시아 땅 해삼위는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하고 혁명을 꿈꿀 수 있는 지역이다. <북국사신>(매일신보, 30.9.19)의 밀항을 도모하는 ‘나’는 불법체류자이자 미등록거주자이지만 은행, 극장, 호텔, 국영 백화점이 즐비한 항구도시와 고색창연한 거리의 건강하고 활기찬 신흥의 기상에 흥분하며 들떠있다. 이 소설은 사상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체험한 에피소드를 친구인 R군에게 편지를 쓰는 액자구조의 서한체 형식이다.

박군과의 밀항은 <상륙>, <노령근해>, <기우> 등 여러 초기작들에 등장하는 모티프이다. 선원, 여행자와 함께 밀항자가 배안의 지하기 관실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며 도착한 항구도시의 카페 우스리

40) 조선여인의 전락과정을 지켜보는 남성 서술자를 통해 1920년대의 시대적 참상을 고발한 소설은 현진건의 <고향>이나 나도향의 <지형근>가 있다.

는 여행과 불법 이주로 심신이 지친 이들을 반겨주고 위로하며 긴장감을 풀어주는 곳이다.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사람에게 자그마한 낙원, 뜻밖에 나타난 구원의 오아시스인<sup>41)</sup> 카페는 러시아여성이자 앵겔스걸인 사샤가 춤추고 노래하며 웃음짓고 수퐁금을 연주하며 이들을 맞이한다. 북국의 헬렌이자 애란의 데아드라로 비교되는 외국 여성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남성들은 이곳에 모인다. 노동자들의 오아시스이자 안식처인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를 ‘하루 온종일 바라보고도 싶고 입에 잘강잘강 씹어버리고도 싶은’ 나는 그녀를 관상의 대상이자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카페 우스리>-안정치 못한 이 며칠 동안 자주 출입하게 된 것은 이 부두 가까이 외롭게 서 있는 카페 우스리였다. 저녁부터 자욱한 안개 속에 붉은 불을 희미하게 던지고 있는 카페 우스리-그곳은 노동자들의 오아시스였다. 마도로스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 속에 서리운 이 나라의 제일 큰 공로자의 초상 밑에는 유쾌한 노동자의 웃음이 있고 건강한 선원들의 흥이 있었다.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긴 항해를 마치고 동무들과 카페 우스리를 찾아오는 것은 곧 그들의 기쁨의 하나인 듯도 하였다. 그것은 물론 순진한 노동자 숲에서만 우려나오는 이 집의 유쾌하고 건강한 기분을 사랑하여서지만 솔직하게 말한다면 보다 더 카페 주인의 딸 되는 사-샤의 매력에 끌려서라고 할까.

“슬라브 아름다운 살결과 능금같이 신선한 용모, 북국의 하늘같이 맑은 눈, 어글어글한 몸맵시, 풍부한 육체”의 사샤는 열렬한 콤사몰카의 일원이자 혁명투사로서 노동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에로틱하고 서구적인 그녀는 열렬한 혁명가이며 아버지를 도와 밤에는 여급일을 하지만 낮에는 선객들을 취조하는 해상 국가 보

41) 크리스토프 르페퀴르, 강주현 역,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168면.

안부의 여서기이다. 고향 없는 이들이자 영원한 방랑자인 선원들은 긴 바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배에서 내리자마자 술과 노래가 있는 카페<sup>42)</sup>로 달려가 여급의 키스를 목적으로 내기를 건다. 관능과 지성, 노동과 매혹을 지닌 사샤로 인해 혁명을 품고 러시아로 온 나는 갈등과 번민에 빠진다. 뜻한바 있어 고국을 떠나 밀항했으나 일정한 숙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불안하고 외로운 생활 속에 찾은 카페는 이국적이고 슬라브적인 정열과 청춘과 낭만이 깃들어 밀항자인 나를 센티멘털하게 하며 불안하고 힘든 현실을 마비시킨다. 이념과 이성 사이에서 번민하고 갈등하는 밀항자의 모습은 이효석 문학의 끊임 없는 문제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사샤를 두고 키스경매를 제안하는 사나이의 말에 소리치고 박수치는 광경에 나는 ‘모를 백성’, ‘미친 장난’이라며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만 곧 이 게임에 빠져들고 가난뱅이 무일푼이자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쟁취한다. 음란하고 야비한 처녀의 키스경매가 건강하고 허물없는 장난이자 단순하고 무작위한 노름으로서 슬라브다운 기풍임을 알게 된 나는 인종적 편견 없이 자신을 선택해준 사샤에 매혹되고 감동받는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이효석은 초기부터 이국취향과 다문화의식, 성과 사랑에 대한 관심을 이미 견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떠돌이, 여행자, 선원들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항구의 카페는 고통스럽고 억압적인 식민지 현실에서 탈주해 계급 없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혁명가의 소명을 잠시 잊은 채 웃고 떠들고 왁자지껄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게임을 즐기고 피로를 풀게 한다. 시대의 암담함과 궁핍함과 떠돌 속에서 카페는 낭만과 위로와 유희를 주며 마르크스주의가 완성되고 서구지향적인 해삼위에 위치해 있다.

이효석 초기소설에 표상된 카페는 지치고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42) 위의 책, 193면.

일시적인 쾌락과 여흥과 여행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재현된다. 또한 도망자, 밀항자가 숨어있거나 은밀한 만남을 갖기에 적합한 곳이었고 소문을 퍼뜨리기에 안성맞춤이며 비밀이 보장된 카페는 음모를 꾸미기에 이상적인 장소<sup>43)</sup>였다. 계급의식과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상과 이상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주의자는 카페여급을 유혹하여 사랑을 얻고자 하는 성적 본능을 제어하지 않는 인간본성을 드러낸다. 동해안과 항구도시 근처에 위치한 카페엔 망명, 밀항, 불법이주, 궁핍, 여성수난, 은신 등의 어둡고 힘겨운 시대적 질곡과 더불어 카페 특유의 젊음, 낭만, 휴식, 에로스, 위로가 공존하고 있다.

## 5. 룬펜의 공상과 여가와 사교의 소비공간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은 백화점, 카바레, 빠, 카페, 호텔, 극장과 같은 근대적 건축양식이 도시풍경을 이루며, 룬펜들이 산책자가 되어 거리를 거닐다가 피로해지면 다방에 들러 차를 마시는 일상으로 묘사된다. 일정한 사건이 아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 즉 거리에서의 배회나 다방이나 카페가기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가 아닌 즉 내면에 떠오르는 상념을 뚜렷한 서사적 인과관계 없이 나열한 서술구조<sup>44)</sup>를 이루며 다방이 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다. 이효석 소설의 주인공은 정착민이자 생활인의 시각이기보다는 여행자, 방관자, 유희적 노마드의 시선으로 삶을 대한다. <천사와 산문시>(사해공론, 36.4)의 ‘나’는 ‘처음으로 여행하는 사람’같이 새로 선 건축물

43) 위의 책, 36면.

44) 하은지, 『1930년대 도시소설을 통한 문화연구: 다방과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11, 8면.

이나 백화점 등의 도회풍경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무례하고 거만한 여행자’로 여인풍경이나 색정문화에 관심을 갖는다. ‘예술의 지팡이를 짚고 여인을 찾은 한 사람의 평범한 나그네’인 주인공은 목적 없이 거닐며 집, 카페, 거리 풍경을 소묘한다. 하급회사원인 홀아비가 어미 없는 사남매를 키우는 이웃방과 아이 아비 없이 해산한 여사무원이 사는 아래층, 수술대의 현실을 피하려는 치과전문에 다니는 친구가 사는 이층 끝방 그리고 을씨년스러운 이층 하숙집 좁은 방 속에 꾸깃꾸깃 움츠리는 나의 삶은 맞은편의 큰 호텔과 대비되며 거리의 유혹에 빠지게 한다. 근대 식민자본주의가 야기한 빈부격차가 서로 바라보는 건물 사이로 배치되고 기획됨으로써 주인공은 왜소함과 무능력, 박탈감이 내재된 채 거리를 배회한다.

방의 생활이 주접들 때 거리는 확실히 일종의 유혹인 것 같다. 수많은 찻집-그것은 벌써 한가한 젊은 사람들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의 운명적 인연을 가지게 되었다. 천차만별의 술집-어느 집에서든지 바쿠스는 사람을 푸대접하는 법이 없다. 스치는 여인의 눈동자에 은근한 위안을 발견함은 시인만의 특권이 아닐 법 없다.<sup>45)</sup>

손님을 차별하지 않고 찻잔을 대접받는 카페엔 맵시와 재주와 회화에 능통한 ‘동화 속의 천사’, ‘마음의 천사’들이 있다. 머플러와 드레스로 치장하고 화장한 여급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남성고객을 유혹하고 위로를 주며 긴장감을 갖게 한다. 주접스러운 하숙집의 살림살이에서 벗어나 거리의 여인풍경, 애잔한 천사의 자태를 볼 수 있는 카페는 산문적 생활과 유리된 꿈과 문학과 사랑과 상상력을 북돋우는 낭만적 공간으로 표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음

45) 이효석문학재단 편, 『천사와 산문시』, 『이효석전집』 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28면.

울하고 어두운 도시풍경엔 ‘자기의 인간성을 온전히 전유하지 못하고 존엄성을 훼손당한 식민지민의 모욕’<sup>46)</sup>이 드리워져 있다.

〈공상구락부〉(광업조선, 38.9)의 삼십 세의 미혼인 실업자 4명의 친구들은 하루종일 카페 미모사에 모여 여급 민자를 정복할 생각이거나 하면서 세계일주를 꿈꾼다. 코오피의 김 속에 우리나는 꿈을 만나는 거리의 찻집을 순례하는 이들은 문학을 숭상하는 청해, 수염을 기르는 천마, 비행사가 되기를 원하는 백구, 몸이 유들유들한 운심 등이다. 이들은 허리우드 여배우를 평하고 여급을 후릴 생각을 하거나 세계를 다니며 각지의 인정, 풍속과 사귀고 생활을 즐기는 유람을 공상하곤 한다.

구락부라고 해야 모이는 집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요 부원이 많은 것도 아니요 하는 일이 또렷한 것도 아닌-친한 동무 몇 사람이 닥치는 대로 모여서는 차나 마시고 잡담이나 하고 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직업 없는 실직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 없는 날마다의 무한한 시간과 무료한 여가를 공상과 쓸데없는 농담으로 지우게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공상구락부란 사실 허물없는 이름이었고 대개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찻집에 들어가서 식어 가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음악 소리를 들어가면서 언제까지든지 우두커니들 앉아 있는 꼴들은-좌중의 어느 얼굴을 살펴보아도 사실 부질없는 공상의 안개가 흐릿한 눈동자 안에 서리서리 서리우지 않을 때가 없었다.<sup>47)</sup>

식민지 현실의 너절하고 미천한 일상에서 벗어나 꿈과 망상과 상상 속에 미인과 여행을 갈망하는 이들은 취업을 못해 시간이 남아도는 룸펜들이다. 운심은 전재산을 투자해 고향의 광산사업으로 자신

46) 유선영, 앞의 책, 325면.

47) 이효석, 『공상구락부』, 『이효석전집』 2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36면.

의 공상을 실현하고자 하고 친구들은 이를 응원하지만 결국 빗더미에 앉는다. 직업이 없는 청해는 민자의 사랑을 획득하고 천마는 신문사에, 백구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카페에 모였던 공상구락부의 아름다운 공상의 잡담과 여가도 줄어들고 모임은 해체된다. 공상과 여가와 사교로서의 소비공간인 카페 미모사에 모인 실직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거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세계일주, 미인 획득, 광산사업을 꿈꾸며 일상을 소비함으로써 이 시기의 경성거리와 카페가 식민지 지식 청년의 삶과 매우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차별과 억압과 폭력이 자행된 식민지 현실에서 그나마 평등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찻집이다. 이 남성들은 〈벽공무한〉(매일신보, 40.1.25-7.28, 〈창공〉으로 게재)의 문화전달자 천일마, 소설가 문훈, 의학박사 박능보, 신문사기자 김종세로 재탄생된다. 오락과 유희의 근대적 공간인 극장과 카페는 ‘식민지배의 억압적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현실도피의 쾌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민자의 모욕과 신체, 감정, 도덕, 문화에 대한 규율이 수행되는 공간’<sup>48)</sup>이었다. 공상과 상상으로 나르시시즘과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소비문화를 향유했던 이효석이 살아가는 방식은 분열과 모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기에 친일, 부일의 입장이기보다는 무일(無日)의 감각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 6. 여급의 성과 사랑의 실험장

이효석 소설의 카페여급과의 관계는 주로 애욕에 초점이 맞춰져

48) 유선영, 앞의 책, 156면.

있다. 퇴폐와 나태함 그리고 타락의 동의어였으며 권태감에 짓눌린 영혼들, 결국 낙오자들의 온상<sup>49)</sup>인 카페엔 신문기자, 잡지사기자, 작가, 화가 등 지식인 예술가와 전문직 종사자와 여급과의 연애와 불륜이 자행되었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카페의 구석자리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일종의 도피처로서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sup>50)</sup>이었다. 실제로 카페는 고급 매음굴로서 손님들은 여종업원들에게 치근덕거리고 유혹하며 카페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교태를 부리지만 그것은 직업상 어쩔 수 없는 행동<sup>51)</sup>이었다.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만나는 공공장소였던 카페는 도박, 암거래, 매음 등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sup>52)</sup>

육체문학을 서구문학으로 인식했던 작가는 여성적인 남성 주체의 성의식 못지않게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둬으로써 성과 사랑을 통한 근대인의 심리와 정체성을 해부한다.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와 낭만적·근대적 연애를 불신하는 작가는 인간의 성의식과 성본능에 주목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작가들과 차별화된다. 여급과 룸펜의 관계는 1930년대 소설의 한 유형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다가 카페에 들린 실직 룸펜이 접대부들과 대화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형태로 나타난다. 성적 서비스와 정신적 위로를 받거나 지성과 예술을 교류하는 그녀들과의 관계를 통해 일시적이거나 시대적 질곡과 위치의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성찬〉(여성 13호, 37.4)은 빠걸 보배, 꼭다부(喫茶部)걸 민자 그리고 신문사 기자 준보의 삼각관계를 통한 인간의 성욕과 사랑을 다룬다. 보배는 낯설고 이질적인 거울 속 모습을 객관화하며 자신의

49)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앞의 책, 199면.

50) 위의 책, 201면.

51) 위의 책, 207면.

52) 위의 책, 45면.

애욕을 살핀다. 거울 속 민자의 아름다운 얼굴에 대해 가벼운 질투와 안타까운 초조와 신선한 야욕을 느끼는 보배는 날도둑 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낮모르는 여자로 착각함으로써 분열적이고 해체된 자아 인식을 갖는다. 빼에서 일하는 민자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화장을 고치는 생활의 일부인 거울을 통해 타인의 얼굴과 낮은 자신의 얼굴을 투영하며 남성이라는 텍스트나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로버트 테일러를 닮은 준보와 언니, 동생하는 사이인 시몬느 시몽을 닮은 민자 사이에서 남녀관계의 가벼움과 허약함을 밝히려는 보배는 둘의 관계에 끼여 이를 휘방하고 시험한다.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려는 민자의 공상과 꿈이 애잔하면서도 둘의 관계를 짓이겨 보려는 보배는 ‘한 사람과 결혼해서 검은 머리 과뿌리 될 때까지 사는 것의 무의미와 남성의 정이야말로 얼음장이자 음지에 돌아난 버섯같이 새빨강게 위란하게 독기를 피우는 것’이라고 여긴다. 수술대에 오른 개구리인 실험대상 준보를 유혹하여 관계를 맺은 보배는 민자와 결혼하겠다는 준보의 천연스럽고 뻔뻔한 낮가죽을 경멸한다. 민자에 대한 준보의 사랑의 허상함과 이중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를 시험에 들게 한 보배는 준보의 사랑을 맹신하는 민자의 앞날을 염려한다.

준보가 보배를 거쳐 다시 민자를 구하는 연애와 결혼의 과정이야말로 새것이 주는 감격과 흥분 때문에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성적 본능을 통해 보배는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 낭만적·근대적 연애, 가부장제, 이성애를 부정한다. 남성중심 질서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그녀는 남성고객을 상대하는 유흥업소 여급이지만 기존질서에 대항하고 연적인 민자를 연민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인물이다. 여급과 고객과의 음험하고 은밀한 성찬이 1930년대 카페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근대적 사랑이 지닌 판타지에 회의적인

보배는 하찮은 준보의 연애, 순결을 지키며 결혼을 욕망하는 민자의 신념을 해체하고 사랑과 연애, 결혼의 허상을 밝힌다. '식탁위의 진미'를 뜻하는 성찬은 성찬식때 쓰는 음식으로 결혼서약을 상징한다. 근대적 사랑과 결혼제도를 음식에 비유한 이 소설은 남녀관계의 무책임함과 근대제도의 빈약함을 카페에서 벌어지는 남녀관계를 통해 성찰하고 있다.

〈계절〉(중앙, 35.7)은 카페여급 보배와 단간 셋방에서 동거하는 건의 이별과정을 그린다. 유물론자인 건은 유산을 하고 생활과 병에 쪼들리며 보배와 사는 도회공간을 “속속으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음직한 굴 속”이라 여긴다. 잡지사의 실패로 가난과 불안 속에서 헤맬 때 만난 보배는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겨 실연한 상태였고 상처를 지닌 두 남녀는 일년간의 생활 속에 미래가 없는 앞날을 예측한다. 인천 해수욕장에서 건과 보배는 그녀의 전 애인 태규, 그를 빼앗은 옥련과 조우하고 서울로 올라와 건이 떠났음을 알게 된다. 태규의 딸을 둔 보배에게 양육비를 전하려는 태규를 거절한 후 사기사건이 담긴 신문기사를 본다. 친구의 애인을 빼앗은 옥련이 찾점을 차리려는 계획도 물거품되자 보배는 그녀가 자신의 불행한 삶을 반복하게 될 것을 측은하게 생각한다.

두 쌍의 남녀들은 정상적인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불안하고 일시적이며 편의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시대 야말로 결혼과 정착이 불가능함을 드러낸다. 영원한 사랑이나 남성의 무책임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보배의 시각이 〈성찬〉에서처럼 이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웃음과 몸을 파는 직업여성이지만 남성이라는 텍스트 안에 갇혀있길 거부하는 보배는 여성 연대와 연민을 지닌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다. 육체적 해방이야말로 참된 인간성의 해방이라고 본 이효석은 서구문학을 헬레니즘에서 비롯해서 연면히 흘러 내려오는 육체문학 혹은 체취문학<sup>53)</sup>으로 보았고 카페

는 성, 육체, 자아, 심리를 해부하는 실험의 장이었다. 남성성은 산업, 합리성, 자기절제 등 중산계급의 규범과 동일시되었던 까닭에 남성예술가는 감각적이고 아름다운 것과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흔히 양성적 인물로 인지<sup>54)</sup>되었으며, 아니마적 요소가 강한 남성 주인공은 여성과 동일시되어 성욕과 애욕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 특이하다. 따라서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시선과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리며 여성의 성욕을 인정하는 태도에서 이효석 문학의 양가적·혼재적인 여성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 7. 맺음말

본고는 카페공간과 커피향기의 의미를 중심으로 이효석 소설을 고찰하였다. 풍토, 기후, 육체의 요인이 작품 생산에 매우 주요하다고 본 이효석은 예술과 생활을 일치시켰고, 서구근대문학을 육체문학, 버터내 나는 문학, 능금 같은 문학, 육체문학, 채취문학, 청년문학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근대성의 기호이자 구별짓기, 나르시시즘을 구현할 수 있는 커피향이 흐르는 카페공간은 문학의 주요 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카페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커피향을 음미하며 문학 토론을 하거나 자기만의 내밀한 공간이 필요했던 이효석은 대학교수이자 가부장 역할에서 벗어나 작가에게 요구되는 감수성, 직관, 정서, 고독, 유사연애감정을 카페에서 획득하려고 했다.

작품 속에 투영된 카페는 계급의식을 지닌 주의자에게 망명과 불법체류로 인한 긴장감과 피로를 풀어주는 곳이다. <북국사신>에서는

53) 이효석, 『서구정신과 동방정취: 육체문학의 전통에 대하여』(조선일보, 38.7.31-8.2), 『이효석전집』 5권, 앞의 책, 505면.

54) 리타 펠스키, 김영찬 외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153-154면.

앵겔스걸이자 러시아여성인 사샤의 사랑을 얻고자 모여드는 사내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낭만과 청춘과 꿈이 도사리는 공간으로 재현되며, 〈기우〉에서는 기모노를 입은 카페여급 유리꼬(계순)의 몰락과 비극적 죽음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고발한다. 항구 주변의 동해안과 해삼위에 위치한 카페는 선원과 여행자, 이주노동자, 망명자들이 지친 여독을 풀고 키스경매와 같은 사랑놀이를 하거나 일본의 감시와 억압 속에 여성수난의 결과인 카페여급의 서글픈 사연이 담긴 곳이다. 〈천사와 산문시〉, 〈공상구락부〉에서는 직업이 없고 무능력한 30대 룸펜 지식인들이 모여 공상하고 여가를 즐기거나 사교하는 소비공간으로 묘사되며, 〈성찬〉, 〈계절〉에서는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실험하고 여급과 손님과의 연애를 통해 가부장제, 일부일처제, 낭만적 근대적·연애, 이성애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성의식과 성본능을 주창하고 주체적·독립적 여성상을 구현한다. 작가는 커피향이 흐르는 카페공간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소설의 주요배경이 되도록 활용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이효석문화재단, 『이효석전집』 1-6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2. 2차 자료

김건형, 「동양주의 담론에 대응하는 이효석의 ‘서구’표상과 댄디로서의 조선 문학」, 『구보학보』 제14권, 구보학회, 2016, 97-138면.

김대영, 「구라파주의의 형식으로서의 소설: 이효석 작품에 나타난 서양문화의 인유에 대하여」, 『현대문학의 연구』 제46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 313-347면.

김주리, 「이효석 문학의 서구지향성이 갖는 의미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2004, 387-408면.

박숙영,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제25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2005, 39-64면.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여급 잡지 『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한국여성학회, 2003, 31-73면.

서지영, 「카페, 근대 유희 공간과 문학」, 『여성문학연구』 제14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65-88면.

손유경, 「1930년대 다방과 ‘문사’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제12권, 한국현대문학회, 2002, 93-123면.

아이카와 타쿠야, 「경성 골목의 세월」, 『구보학보』 제14집, 구보학회, 2016, 39-65면.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0, 289-311면.

오윤정, 「1930년대 경성 모더니스트들과 다방 낙랑파라」,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33집, 2017.상반기, 33-56면.

이미림, 「1930년대 소설 속의 타자화 성애화된 직업여성 고찰」, 『문명연지』 제15권, 한국문명학회, 2014, 5-32면.

이민부, 「이효석 문학에서의 지리인식」, 『문화역사지리』 제29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7, 22-37면.

- 이현주, 『이효석과 ‘구인회’』, 『구보학보』 제3권, 구보학회, 2008, 117-150면.
- 장유정, 『1930년대 한국 도시문화와 대중음악』,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137-157면.
- 정경임, 『이효석의 Dandyism』,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1-109면.
- 하은지, 『1930년대 도시소설을 통한 문화 연구: 다방과 카페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 석사학위논문, 2011, 1-40면.
- Steven Capener, 『전통의 비판으로서의 구라파주의와 세계주의: 이효석』, 『유라시아연구』 제11권, 아시아 유럽미래학회, 2014, 19-37면.
- 김진옥, 『아로마: 냄새의 문화사』, 현실문화연구, 2002.
- 문화콘텐츠연구회, 『살롱, 카바레, 카페』, 예림기획, 2004.
- 안대회 외, 『18세기의 맛』, 문학동네, 2014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1997.
-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 리타 켈스키, 김영찬 외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 아.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 케롤 M. 코니한, 김정희 역, 『음식과 몸의 인류학』, 갈무리, 2005
- 콘스탄스 클라센 외, 김진옥 역, 『아로마: 냄새의 문화사』
-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강주현 역,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 피에르 부르디외, 최중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상)』, 새물결, 2006.
- 하인리히 E. 야콥, 박은영 역, 『커피의 역사』, 우물이 있는 집, 2005.



<Abstract>

## A Study on Coffee Smell and Cafe Space in Lee Hyo-Seok's Literature

Lee, Mi-Rim

Armed with literature theories and modern knowledge, Lee Hyo-seok left urban novels characterized by eroticism and exoticism. The writer and college professor had his art match his life and believed tha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would give birth to works with an emphasis on natural characteristics, climate, and the body as conditions for modern Western literature. Such examples of his would include literature like strawberry, tomato, apple, fermented soybean lump, or butter. He understood modern Western literature as sensual literature, youth literature, and body odor literature and used coffee smell and cafe space as the signs of modernity in his works. Cafes made a mainstream in the modernism literature of Guinhei in the 1930s, and Lee used a cafe space emitting coffee smell as an allegory in his daily life and works, as well.

A cafe was a sign of modernity and distinction, representing a place where everyone could receive a treatment and welcome, escaping from contempt and suppression. Distinguished from country people and premodern individuals, the cafe space witnessed intelligent conversations based on art, knowledge, music, and refined emotions and provided customers with a private and secret space of their own

free from anyone's interference. It was a space needed by Lee to maintain his artistic sensibility likened to fog, verse, scent, dream, and fantasy as a professor and head of family. Drinking a cup of tea while discussing literature, checking time, and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depicted an aspect of modern people to reveal a modern lifestyle in modern time. Cafes near a port city "Bukguksasin" and "Giwoo" were reproduced as an oasis of romance and youth where customers with many stories would gather, singing, dancing, drinking alcohol and coffee, and getting love. These were where stowaways, travelers, crewmen, and migrant workers could take a rest in extreme tension to cross the border. These places also told the stories of Russian waitresses as Engels girls and Joseon women that became waitresses after the fall of home economy. The cafes in his early works written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 consciousness had a mixture of asylum, poverty, and romance for the people of colonized Joseon that escaped from the suppression, violence, and surveillance of the ruling Japanese. Cafes were also reproduced as the space of consuming hobos' fantasy, leisure, and social intercourse. Hobos that were intellectuals without a job would enter a cafe after walking around Seoul or Pyeongyang streets with tired legs. Such a cafe would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civilization in a unique situation of colonized capitalist modern times. In his *Angels and Prose Poems*, Lee depicts the main character's daily life of leaving his shabby, humble, tragic, and miserable boarding house, walking along the streets lined with hotels, department stores, cafes, and cabarets, and receiving comfort and sexual service from the angels of his heart or waitresses, who had a great appearance and talent, were proficient with talks, adorned themselves with mufflers and dresses, and wore make-up, at a cafe. His *Fantasy Gurakbu* describes the daily life of

intellectuals in colonized Joseon represented by four single men without a job in their thirties. They would sit in a cafe all day long, dreaming of taking a trip with a beautiful lady or traveling around the world. Their gathering would break down, however, after one of them was put in a difficult situation after his mining business failed. In Lee's novels, the cafe space was also reproduced as the testing ground of sex and love. In his experiments with desire and love between cafe waitresses and male customers, the stories were told in women's position, which differentiates Lee from other writers. Women were well aware of men's irresponsible and temporary sexual instinct and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monogamy, modern romantic dating, patriarchy, and heterosexual love. They would understand their rivals in love based on sympathy and solidarity of women instead of getting jealous of them. Self-sufficient and independent cafe waitresses were based on Lee's literary view, which was that the liberation of the body would result in the liberation of true humanit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ffee smell and cafe space were major backgrounds in Lee's urban novels and represented a modern life implying his thematic consciousness.

Key words: coffee smell, cafe space, sign of modernity, distinction, oasis, waitress, hobo, testing ground of sex and love

투 고 일 : 2018년 6월 7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